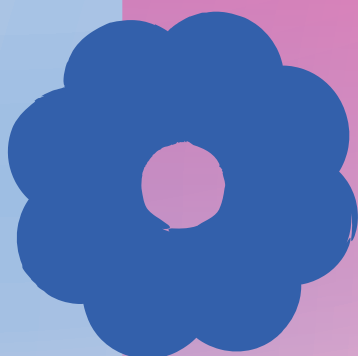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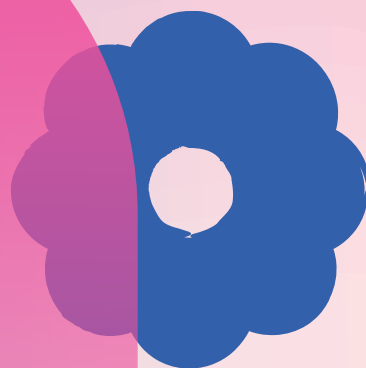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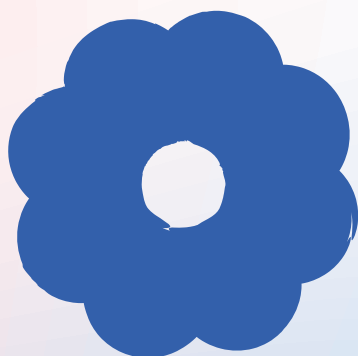


봄 바람

Bom Wind
Bom Wish



CONTENTS

01	발간사	이로써 봄은 또 가장 앞선 계절이 됩니다
02	보머 2022 서베이	간식 덕에 월요일이 기다려지나 봄
04	인턴 후기	인턴 보머들의 내.업.내.산 솔직 후기
06	뉴 보머 인터뷰	신입이지만, 베테랑입니다 ... 뉴 보머들의 '멀티 페르소나'
08	봄의 새바람	함께 성장하는 남다른 리더들
10	피알봄의 사회공헌활동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자오나학교 정수경 교장 수녀님
14	ASCO 2022 후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ASCO 2022
16	2022 봄바람 손님을 맞다	김찬혁 청년의사 기자 헬스케어 산업과 함께 성장하러 노력 90년대생 헬스케어 전문 기자의 삶
20	2022 피알봄 타임라인	
21	올해의 보머	구지은 사원, 만능캐 꿈꾸는 침착보스

발행인 전은정
편집인 박준형
편집고문 이필재
기획, 취재 구지은, 김도희, 김윤진, 김혜민, 임예슬
디자인 지가을

봄바람

발간사

이로써 봄은 또 가장 앞선 계절이 됩니다

봄은, 올해 여러 고객사의 비전 수립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비전이란 조직의 미래 목표나 지향점을 뜻합니다. 비전의 수립은 단순히 멋진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의 기대를 청취해 조율하고, 그 결과 다수가 동의하는 큰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전에 담을 '최고의', '앞선', '탁월한' 같은 말의 함의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죠. 단어 하나 하나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내고, 함께 해석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비전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회사도 비전 워크숍을 했습니다. 전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지성을 발휘했습니다. 봄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각각 무엇이고, 외부에선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함께 토론하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세션이었죠. 그만큼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봄의 비전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변화가 많은 뉴노멀 시대입니다. 조직 비전의 유효기간은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년 동안 우리는 또 안팎에서 많은 변화를 겪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수립한 아래의 첫 비전은 모든 보머들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6 봄은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이야기를 만들며, '함께 성장'의 가치와 '남다른 태도'를 견지한다. 이로써 봄은 가장 앞선 계절이 된다. 99

복합위기 시대라지만 모든 위기는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위기입니다.

이번 봄바람 3호엔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오나학교 정수경 교장 수녀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도희 사우가 취재했는데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후원자를 찾는 것보다, 자오나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과의 연결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학교가 많이 알려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저 없이 자오나학교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를 접하고서 봄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오나학교 홍보대행'을 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PR 컨설팅 펌으로서의 재능 기부입니다. 로펌의 무료 변론 같은 거죠. 팀장회의 논의를 거쳐 자오나학교와도 협의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자오나학교의 PR을 대행합니다. 자오나학교와 이 학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매칭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사내 공모를 통해 후원 대상으로 자오나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무료 PR 대행으로 자오나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자오나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혼모들을 봄이 연결해 세상이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봄은 또 한번 가장 앞선 계절이 됩니다.

이 남다른 일을 우리가 해냈지 말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대표 전은정

간식 덕에 월요일이 기다려지나 봄

글 김윤진

2022년도 막바지다. 12달을 꽉 채워 바쁘게 온 열정을 태운 보머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022년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 보머들은 어떤 행복을 느꼈을까? 보머 서베이를 통해 보머들의 '소확행'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한 해의 행복을 곱씹어보려고 한다.

QUESTION 1

당신의 봄 생활을 행복하게 한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2022년은 새로운 사내 복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난 해이기도 하다. 보머들에게 행복으로 자리잡은 사내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월요일 아침을 책임져준 간식 제공이 70.6%로 1위를 차지했다.** 매주 월요일, 최고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준 경영지원실에 보머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평수** 월요일마다 준비되는 간식 덕에 한주의 시작이 누구보다 든든했다.
- 유기** 가끔 취향저격 간식이 제공될 때는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 매미** 월요병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월요일에 작은 기대를 심어주는 원동력

2위는 58.8%가 응답한 **팀빌딩 프로그램**이다. 봄소풍, 불링대회 등 다양한 팀빌딩 프로그램은 따뜻한 보머 생활의 활력소로, 회사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서 좋은 팀 분위기, 업무적 성취와 회식, 그리고 건강해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요가, 필라테스 프로그램 등이 꼽혔다. 특히 요가,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주목해볼만 하다. '따로 저녁 시간을 들이지 않고 회사에서 운동을 해결할 수 있어 좋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극찬을 받으며 봄의 새로운 행복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QUESTION 2

행복한 보머 생활을 방해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지만 보머들을 행복한 상태로만 두지 않는 복병들이 있다. 바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일(70.6%)과 피로, 수면 부족(58.8%)!**

QUESTION 3

업무에 지친 당신이 무기력함이나 권태로움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머들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일과 피로감을 한 방에 날려줄 방법을 보머들이 직접 소개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응답은 **잠자기(41.2%)와 유튜브 보기(35.3%)**였다. 유튜브 보기를 선택한 보머들은 자신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추천했다.

- 파랑** 올리버쌤 유튜브 추천한다. 아기 '체리'가 너무 귀여워 힐링된다.
- 준티포** 침착맨 유튜브 추천한다. 마음 챙김이 필요하거나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다.

그 외에 눈에 띄는 답변으로는 쇼핑, 퇴근시간 따릉이 라이딩, 등산, 뮤지컬 관람 등이 있었다.

신길역 따릉이 중독자
퇴근시간 따릉이 라이딩 선택 따릉이 추천한다. 교통비 아끼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이다.

하늘 이모
등산 선택 가벼운 뒷산 산책 같은 1시간짜리 코스의 산행을 추천한다. 서울 안산과 개화산 추천한다.

루피
뮤지컬 보기 선택 노래, 연기, 무대연출 등 볼거리가 많고 생각할 거리도 많아진다. 대학로에서 중극장 뮤지컬은 4~5만원이면 관람이 가능하다!!

누군가에게 익숙한 행복 방식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행복 공식이 될 것이다.

QUESTION 4

2022년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한다면?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보머들은, 이렇게 한 해를 회고했다.

- 짜장범벅** 휘리릭 **700춘식이** 썩 열심히 산 듯ㅋ
- 아삭한 악어** 우당탕탕 **루피** 함께라서 해낼 수 있었던 2022!

QUESTION 5

만화 or 영화 속 캐릭터가 될 수 있다면, 2023년 되고 싶은 캐릭터는?

그렇다면 다가온 2023년, 만화나 영화 속 캐릭터가 될 수 있다면 보머들은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을까? **1위는 백만장자로 살다가 영웅으로 떠나는, 한 평생 스타로 살다 영웅으로 떠난 아이언맨이 (35.3%)**이었다. 목표를 다 이루고 귀농한 타노스(23.5%)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주인공 버프로 운이 좋은 마리오와, 한 번의 기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루피 등을 선호했다. 백만장자 영웅과 귀농한 타노스, 운이 좋은 마리오와 루피 외에도 사보 기자의 시선을 끄는 답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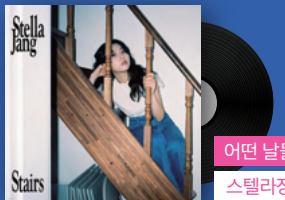


- 시카고피자** 캠핑 유튜버의 개^^ **평수**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 류승수

QUESTION 6

2022년 나의 노래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보머들이 추천하는 2022 '올해의 노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노래를 들으며 열심히, 최선을 다 해 달려오면서 만난 사소한 행복과 더불어 2022를 기억하자.



인턴 보머들의 내.업.내.산 솔직 후기

글 김혜민

봄을 거쳐간 인턴 보머들이 직접 업무에 참여한 후,
산 증인이 되어 말해주는 내.업.내.산 생생 후기를 들어봤다.

팀 만족도

★★★★★

#생일은못참지 #답변과격려무한제공 #피알봄날의햇살

팀원들이 제 생일을 기념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팀원분들께서 케이크까지 준비해 축하파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가장 기억에 남아요.

- 허도연

팀원분들이 항상 바쁘게 일하고 계셔서 질문을 하는 게 방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친절하게 답해주십니다. 잘 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면 "잘 하고 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아 열정을 불태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 정주현

친구들이 요즘 하는 인턴 생활은 어떠냐고 물을 때마다 "팀원분들을 잘 만나서 참 행복해!"라고 말하곤 했었던
니다!

- 정세진

인턴 업무 만족도

★★★★★

#업무직접참여 #경험과성취 #각종행사동행

이토록 다양한 업무를 맛볼 수 있는 인턴이라니! 기자간담회 참석, CRS 아이디어 구상, 모니터링, 유튜브 시나리오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맡을 수 있었어요.

- 정세진

최대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주시고, 대표님이 직접 시간을 내어 자료조사와 PR 플랜에 대해 피드백 이상의 조언을 해 주신 것은 정말 기억에 남아요.

- 오승민

단순 잡무가 아니라 직접 일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특별했습니다. 인턴이지만 구성원이 되어 일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주영

업무 분위기

★★★★★

#수평적 #따뜻함 #전문적

기업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서 입사 전에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했는데, 친절한 팀원들 덕분에 기죽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같은 팀이 아닌 분들과도 자주 인사하고, 같이 밥도 먹는 그런 친근함이 피알봄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 박수민

회사에 식물과 그림이 많아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 김주영

팀 미팅이 몇 번 있었는데, 체계가 잘 잡혀 있었고 팀원들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의견을 개진하는 걸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한 분야의 전문 종사자구나' 싶었어요.

- 이주희

사내 특강

★★★★★★★★

#인턴만족도1위 #직무이해도상승

8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 특강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학부생 신분으로는 접하지 못할 알찬 정보들로 구성돼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 정주현

관련 전공이 아니어서 기획서 작성에 대해 감을 잡기 어려웠는데, 기획서 특강을 듣고 이런 방식으로 기획서를 쓸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 이하영

사내 특강을 통해 직무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어 뜻깊었어요.

- 정세진

사내 간식 제공

★★★★★

#월요일의행복 #커피머신보유

월요일에는 아침을 안 먹고 와도 됩니다! 월요일마다 맛있는 간식이 나와요. 아침 먹고 출근하면 배불러 점심을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다른 요일에도 빵 구워서 잼 발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 이주희

캐틴에 있는 커피 머신 덕분에 있어서 카페에서 커피를 사올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았어요!

- 박수민

사내 이벤트

★★★★★

#회식메뉴소고기 #생기있는회사생활

입사한 지 일주일 차라 아직 어리버리했을 때 전체 회식에 참석한 날이 기억에 남아요. 그 덕분에 피알봄의 분위기를 익히고, 소속감이 생긴 좋은 시간이었어요. 소고기와 육회도 너무 맛있었고요..ㅎ

- 오승민

동료들과 캐틴에서 다같이 유튜브 볼링 강의를 보면서 사내 볼링대회 준비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ㅎㅎ 볼링이 처음인 분들이 많았는데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두 함께 즐기고 온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 이하영

팀 빌딩 활동, 와인 게더링 등 달마다 이벤트를 통해 회사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 정주현

Appendix

피알봄 인턴들이 전하는 인턴 생활 꿀팁!

공용폴더의 '사내교육자료'와 업무 파일의 Press Kit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Press Kit에서 담당하는 약제의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사내교육자료'의 용어정리 파일에서 PFS와 같은 전문 약어를 미리 숙지할 수 있어요. 특히 디테이션 업무는 전문용어를 숙지한 후에 하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 오승민

동영상을 보거나 녹음본을 들어야 하는 업무도 있어 유선 이어폰을 준비하면 좋아요! 워드, 엑셀, PPT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과 단축키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도착하거나 점심시간에 피곤할 때 심원원 안마의자에서 쉬세요! 점심시간에는 안마의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 허도연

'고냉지 김치찌개'라는 음식점이 회사 근처에 있는데, 우연히 반해서 정말 두 달 내내 열심히 먹은 기억이 있네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 부대 김치찌개 조합으로 시켜서 비빔밥이랑 함께 꼭꼭 드셔보세요! 테이블 회전도 빨라 기다리지 않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 박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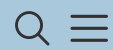
2022 뉴 보머 신견도 부장 & 임예슬 사원

신입이지만, 베테랑입니다 ... 뉴 보머들의 '멀티 페르소나'

글 김혜민



2022 뉴 보머 단체 채팅방



뉴 보머_신견도님과 뉴 보머_임예슬님이 입장했습니다.

헬스케어PR을 시작한 계기 또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대학 때 홍보론 수업을 들으면서 PR이 우리 사회에서 여론을 움직이는 주요 기능이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헬스케어 PR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관한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PR 활동을 펼치는 일이기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직무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PR 업무와 헬스케어 분야의 특이점에 대한 설명이 매우 인상깊었어요. 특히 '삶의 질'이라는 최고의 선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일하는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뉴 보머로서 PR봄의 첫 인상과 앞으로의 기대치가 궁금합니다.



PR봄의 첫 인상은 '열심', '노력', 그리고 '정적(?)'입니다! 미디어에서 흔히 본 PR업계의 모습은 항상 뭘 들고 뛰어가고, 전화업무로 정신없는 느낌이었는데요, PR봄의 모든 분이 조용히 집중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약간 기가 죽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적응해 그 정적 속에 분주함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 분주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



아울러 PR봄은 미디어 관련 네트워크와 릴레이션십도 강화기에 앞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최근 3개월동안의 적응기간을 거쳐 드디어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재택근무날에 어떤 하루를 보내나요?



재택근무의 장점은 평소의 출퇴근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시간에 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의 긴장을 풀어요. 밴드 등을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고 간단한 코어 운동을 하면서 몸과 머리를 깨워 일할 때 더 좋다고 느낍니다. 또 배달의 민족 앱으로 종종 커피를 배달시켜 먹는데 재택근무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재택 근무 자체도 편하고 좋지만, 전체 구성원이 줌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더 좋았어요. 이걸 나름 소신발언인데요,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신견도 부장, 임예슬 사원 1:1 채팅방



반가워요, 예슬님! PR업무가 처음인데, 지난 3개월동안 가장 보람을 느낀 때가 언제였나요?

제가 쓴 보도자료나 스크립트로 칭찬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사실 글쓰기가 나를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에 쓰던 글과 스타일이나 목적이 달라서 처음에는 많이 헤매곤 했어요. 하지만 경험도 쌓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셔서 요즘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가 열심히 한 결과물이 과연 최선의 결과물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장님은 주니어 시절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깊게 고민하기보다는 피드백을 열심히 복습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물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덧대어질 때 완벽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꼭 여러 사람과 세어하고 선배들에게 많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선배들이 뜻깊은 조언을 해주셔서 저도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수연 상무님도 주니어 헬스케어 PR인이려면 일단 3년 동안만 버텨보라는 조언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부장님은 헬스케어 PR 3년차에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혹은 3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년차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한데요 ㅎㅎ 주니어 PR인에게 3년차가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3년차는 인생 향로를 개척하면서 방향을 본격적으로 설정하는 시기라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더라도 현재 방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경로를 바꾸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가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고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라 운신 폭이 좁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사회 분위기가 유연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나이에 상관 없이 능력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고려해 원하는 일,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3년차 시절 부장님에게 뒤늦게 주는 조언이기도 한 걸까요? ㅎㅎ



3년차의 저에게 조언을 한다면... "도망쳐." 농담이고요, 더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회사 업무에 매진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직장인으로서, 또 PR 전문가로서 퍼스널 브랜딩에 더 신경쓰고 본인의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챙기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슬님은 3년차인 미래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기대하는 모습이 있나요?

일단 제발! 대학원 졸업을 했길 바라고요, 자격증 한두 개는 따 놓았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 살이 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ㅎㅎ



함께 성장하는 남다른 리더들

글 구지은 / 사진 송경은 외

‘Think Different’

역대 최고 슬로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애플의 문구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비전을 단 두 단어로 표현해 지금까지도 애플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비전을 담은 슬로건은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구성원들에게 자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헬스케어 전문 PR회사 피알봄은 설립 7주년을 맞아 향후 3년의 비전을 정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대표부터 신입사원까지’ 피알봄의 전 구성원이 회사가 추구하고 달성하려는 미래의 모습을 함께 구상했다.



시작은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

조별로 3년 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세 가지를 공유해 조원들을 알아갔다. ‘산티아고 순례길’, ‘요리 자격증’ 등 보머들의 다양한 목표를 알 수 있었다. 이어 조별로 퍼즐을 푸는 시간. 30분 이내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보머들은 ‘각자 위치를 담당해 퍼즐을 푸는 조부터 한 부분을 함께 맞춰가는 조까지’ 다양한 퍼즐 완성 방식을 보였다.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점심 시간에도 맞추는 보머들의 끈기도 알 수 있었다는 후문

2025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업계 1등’, ‘헬스케어 유튜브 채널 최초 골드버튼’, ‘신사옥 건립’ 등 미래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했다. 보머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성장’, ‘리더’, ‘만족’ 등이었다. 지난 7년간 피알봄을 발전시켰고 앞으로로도 원동력이 될 가치다.



트렌드·SWOT 분석으로 본 피알봄의 미래

사회·경제, 미디어, 경쟁사, 고객, 규제로 나눠 각 분야의 트렌드 를 적고, 조별로 트렌드들을 그룹화했다. 발표자들이 그룹화한 이유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SWOT 분석을 통해 피알봄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논의했다. 보머들의 솔직한 마음과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보머들이 마치 고대 아테네 광장의 철학자들 같았다는 후문이다.



“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 ”

이들간의 비전 워크숍을 통해 비전을 담은 피알봄의 슬로건이다. 2025년의 피알봄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 기대된다.



비전워크숍 그 후

사내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른다는 보머 들을 위해 비전워크숍 직후 상반기 랩업 미팅이 열렸다. 상반기 중 성공적인 케이스를 팀별로 발표 하고 회사 전반의 성과, 회사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비전워크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제시된 디지털 PR팀이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자오나학교 정수경 교장 수녀님

"미혼모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겐 자오나학교가 친정인 셈이죠"

글 김도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오나학교.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미혼모,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가정을 벗어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 피알봄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자오나학교를 정기 후원하고 있다. 사내 공헌 활동 공모전을 열어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를 제안했고 투표로 자오나학교를 선정했다. 올해는 후원과 더불어 학생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리스 만들기 수업과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지원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여성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자오나학교의 이야기를 정수경 교장 수녀님을 만나 들어봤다.



정수경 교장 수녀님 (사진: 김성현)

Q1. 자오나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천주교의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에서 2014년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한 기숙형 대안 학교입니다. 정원은 7명인데, 현재 세 학생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잠깐 거쳐 간 학생들은 50명 가까이 돼요.

저는 개교 당시부터, 담임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2018년 교장을 맡았습니다. 저 말고 두 분의 수녀님이 계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아기를 전담해 돌보아 주시는 분,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 등 여러 구성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도 도움을 주시죠.

자오나학교 전경 (사진: 김성현)



Q2. '자오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캐오가 오른 나무의 줄임말인데 자캐오는 청소년들을, 나무는 자오나학교를 의미합니다. 성경 속 키 작은 자캐오는 나무에 올라 새로운 세상을 만났죠.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배움과 성장을 제공하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Q3. 자오나학교의 입학 조건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우리 학생들은 14~24세의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들, 학교 밖 여성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처음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찾아온 친구들이 미혼모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죠. 이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또 처음엔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에서 아기를 낳으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출산을 한 미혼모 청소년들만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출산 전 미혼모 청소년들이야말로 갈 곳이 없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진통이 오거나 위급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면 되겠다 싶어 임신 중인 청소년도 결국 입학생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지난해엔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직접 태줄을 자른 선생님도 있습니다. (웃음)

미혼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절 수술을 하지 않고 아기가 태어나도 입양 보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습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오나학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게 기쁨과 힘이 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교내 기숙사에 살면서 교과 수업을 듣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해나갑니다. 아기를 전담해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미혼모 청소년들은 비교적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어요. 입학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준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년 만에 졸업합니다.

수업 공간 (사진: 김성현)



학생들의 공동생활 공간.
거실에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 눈에 띈다. (사진: 김성현)

Q4. 자오나학교에선 무엇을 배우나요?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4학기제로 운영되는데 학생들마다 개별 커리큘럼으로 수업합니다. 1, 2학기는 검정고시에 중점을 두고 3, 4학기엔 생활 영어 수업, 글쓰기 수업, 볼링·클라이밍 등 예체능 수업이 많습니다. 오전 9시 ~ 오후 4시 바쁘게 하루를 보내죠. 고등학교 과정을 밟지 못한 학생들은 일단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교과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진로 전담 선생님과 틈틈이 진로 탐색도 하고요. 검정고시를 마친 친구들은 본격적인 자립을 위해 관련 자격증을 따거나 외부 기관과 연계해 인턴십을 합니다. 자립을 준비해야 하기에 생활 습관과 관련된 수업, 가계부 쓰는 법, 돈 관리법 등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는 수업도 합니다. 아기가 있는 학생들은 양육 수업도 하고요. 또 자오나학교 학생들도 봉사를 합니다. 노숙자분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소에서 급식을 도와드린 적도 있어요.

만족도는,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 배우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투덜거리는 학생들도 있죠. 하지만 모든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배움의 힘을 믿고, 아이들도 자신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자오나 학교에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도서관 (사진. 김성현)

Q5. 자오나학교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미혼모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무래도 비용, 특히 인건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을 받았는데, 예산 관할이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 2022년 말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고민이죠. 미혼모 시설 등록을 고려한 적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운영 인원 등 행정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소규모 대안학교 로선 여의치 않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면 정부가 정한 테두리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결국 미혼모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두루 품으면서 자오나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을 이어 나가기 위해 비인가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운영되기에, 피알봄 후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자 모집을 위해 일 년에 한 번 성당을 찾아 홍보도 하고요. 하지만 후원자를 찾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오나학교의 존재를 몰라 못 오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라요.

피알봄은 학생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리스 만들기 수업과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지원했다. (사진. 송경은)



Q6.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자오나학교 졸업생들의 근황도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지켜볼 때 보람을 느껴요. 졸업 후 아기와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을 주거나, 아기를 데리고 놀러 오면 안심이 되죠. 회사에 연차를 내고 와 수다를 떨다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겪은 힘든 일이나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아이들이 비로소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소한 성취감도 맛보고, 매일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아도 살만하다고 느끼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또래 아이들과 달리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저도 도와야죠’라면서 후원자가 되는 졸업생도 있어요.

Q7. 청소년 미혼모나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차가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와 정부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은 보통 엄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정시에 퇴근해 아이를 픽업하고 돌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곧 미혼모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혼모는 아이를 갑자기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 돌봄 시스템이 더 잘 지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미리 신청해야 하기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 제도적인 보완 못지않게 이웃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미혼모는 다른 엄마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려 교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죠. 주변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Q8. 자오나학교의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미혼모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줄어들지 않는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과의 연결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잘 쉰터는 많이 찾지만, 다시 학교를 찾아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건 엄청난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입학 문의만 하거나 면담 후 입학 날까지 확정하고도 입학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즘은 SNS에 도움을 구했다 나쁜 어른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아 걱정이 큼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자오나학교가 더 많이 알려져 주저 없이 학교에 문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많지 않아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학생 수가 많아지면 제2의 자오나학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Q9. 자오나학교 재학생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평소 잔소리는 많이 합니다 (웃음) 아이들이 현재나 미래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변화된 게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래 아이들과 단체 생활을 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또 당장 학생 신분으로 배움을 이어 나가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보다 알바를 해 돈을 버는 걸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용기를 내 자오나학교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노력하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자신과 아이들, 주변 사람들까지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수경 교장 수녀님 (사진. 김성현)

글/사진 김자영·김용지

고리에 꼬리를 부는 ‘아스코 2022 탐방’ 이야기

의학 발전의 현장에서 헬스케어 PR의 의미를 새겨 / PR팀 김자영, 김용지의 ASCO 2022 탐방기



“2022년 6월 초여름이었어. 미국에서는 매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가 열린다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온라인으로만 열렸어.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가 됐지’라며 수긍하기 시작했어. 그 소식이 돌아, 마침 PR팀 전은정 대표가 긴급히 용지와 자영이를 부른 거야. ‘이제 때가 됐다’. 보머의 ASCO2022 탐방기는 그렇게 시작됐어. 피알봄의 첫 해외학회 탐방이었지.”

시카고 ASCO 탐방에서 돌아온 자영이와 용지가 주요 여섯 장면을 소개하려고 해. 그럼 시카고 맥코믹센터에 있는 김자영·김용지 특파원에게 마이크를 넘겨볼게.

ASCO 2022에서 가장 뜨거웠던 엔허투 발표 현장

네, 여기는 ASCO 2022가 열린 시카고 맥코믹센터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엔허투 3상 DESTINY-Breast04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ASCO 2022에서 전세계 석학들이 주목하는 세션으로 주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데요. 이 발표를 듣기 위해 맥코믹센터에서 가장 큰 홀은 이미 참가자로 가득 찼고 다른 홀까지도 중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임상 결과 발표 순간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기립했고 박수 소리로 학회장이 떠들썩 했습니다. 의미 있는 임상 발표 순간을 함께한 감격에 출장을 다녀온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진출처 ASCO 2022

찾아가는 질의응답 마이크 NO! 마이크를 찾아오세요!

여기는 폐암 새 데이터들이 발표되는 현장입니다. 어? 발표가 끝났는데 이 큰 행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한다고요? 도대체 스태프들은 얼마나 뛰어야 할까? 늘 간담회와 행사를 준비해온 입장에서 걱정도 잠시. 객석의 중앙에 있는 스탠딩 마이크 뒤로 줄이 생깁니다. 질문하는 게 낯설기만 한 우리로는 생소한 모습입니다.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짐까지 챙겨 들고 마이크 앞에 자리잡아 열정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미국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운 라선영 교수님 발표

ASCO 2022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오전 8시에 시작되는 세션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서들을 탔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맥코믹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현장에 도착한 것은 바로 연세암병원 중앙내과 라선영 교수님의 발표 때문! 일찍 도착한 덕에 1열에서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뷰·기자간담회 때 뵈던 교수님을 태평양 건너 미국 시카고에서 뵈니 더욱 반가웠어요. 또 교수님께서 ASCO라는 큰 학회 발표자로 나서 국내 데이터들을 소개하는 모습, 패널들이 한국 데이터에 대해 관심있게 듣고 여러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ASCO 인터뷰 룸에 다녀왔어요

이곳은 ASCO에서 마련한 인터뷰 룸입니다. 일반 참가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기자님들은 아침부터 룸 부킹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기자님의 도움으로 인터뷰 룸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플레너리 세션 후 국내 선생님들을 모시고 방금 발표된 따끈따끈한 임상을 리뷰하는 자리였습니다. 옆방에서도 다양한 외신이 인터뷰를 하고 영상 뉴스 보도를 하는 등 전세계 미디어의 관심과 열기를 느끼는 참신한 경험이었습니.



꼭 운동을 신고 오세요” ASCO 부스 투어

ASCO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장면이 바로 ‘부스 투어’ 일 것 같습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 있게 준비된 부스들은 회사마다 컬러와 파이프라인을 뽐내기 위해 다양한 비주얼 요소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내에 진출하지 않아 처음 들어본 제약사와 신약들, 환자단체 부스 등이 새로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나 회사를 만날 때는 더욱 반갑고 세심하게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기자님이 다양한 치료제들의 다이내믹을 설명해주신 덕에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은 부스에서만 2만 보를 넘게 걸었어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주도로 국내 18개 임상시험 유관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사절단의 한국관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부쩍 성장해 다음 ASCO에서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미시간 호수를 보며...



마지막 날 전세계 기자들이 있는 프레스룸에 초청받아 다녀왔습니다. 뉴스로 보던 장면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큰 공간에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필요하면 지원센터가 마이크로 해당 기자를 호명했습니다. 기자들은 프레스룸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추척 측으로부터 인터뷰 어레인지 등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자실 밖으로 나오면 미시간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요. 그 규모가 바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트를 타는 사람도 있고, 호숫가로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반짝이듯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잠깐 휴식도 취하고, 사들고 온 점심을 먹으면서 여유로운 식사시간을 보냈습니다.

ASCO2022에 다녀와서...

자영 가기 전엔 겁도 나고 걱정 투성이었는데... 앞으로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해 보겠습니다! 이번 ASCO 탐방을 통해 제 머릿속의 2D가 3D가 되는 경험을 실감나게 한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 보던 것들을 실제 경험해보니 더욱 이해가 잘됐어요! 대표님, 상무님 그리고 팀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좋은 경험과 배움을 얻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지·지원해주시고 당겨 주시고 끌어 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추신. #용지없인못살아 #용지분리불안

용지 ASCO에 가기 전, 어떤 점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새로운 눈이 떠지는 듯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떠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학발전을 위해 힘쓰고 이를 알리려는 모습에서 헬스케어 PR의 의미를 다시 생각보는 기회였습니다. 대표님이 여러 방면으로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정말 마지막날까지 즐거운 해외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ASCO 출장에서 이끌어주시고, 케어해주신 자영 팀장님께도 감사합니다. (하트)

김찬혁 청년의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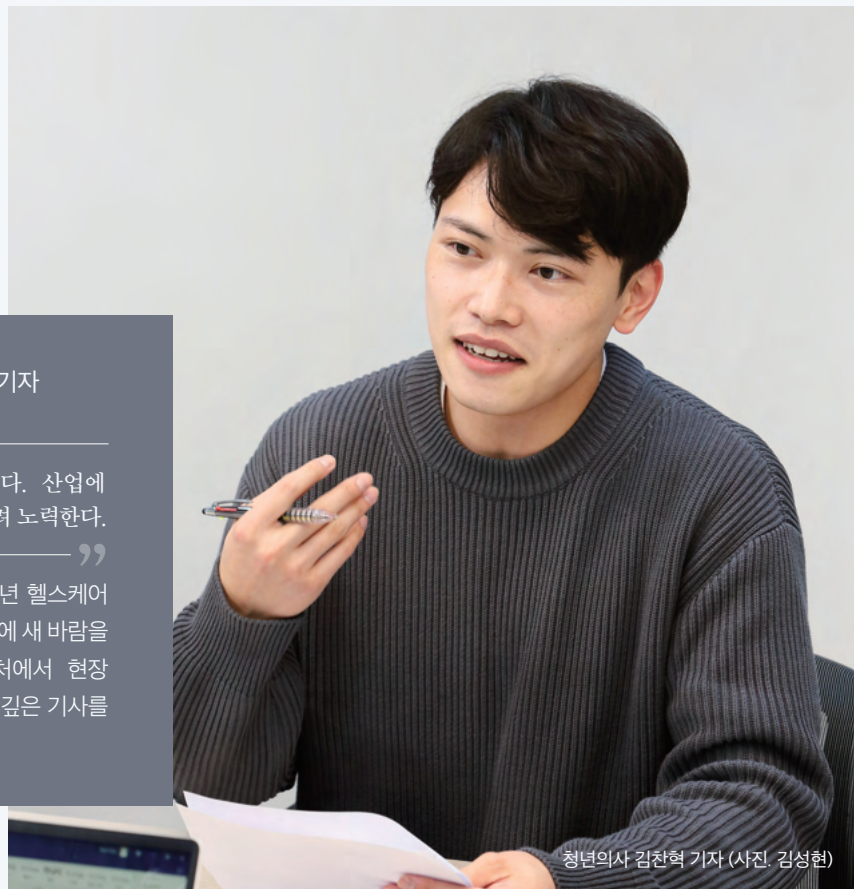
헬스케어 산업과 함께 성장하려 노력

90년대생 헬스케어 전문 기자의 삶



글 구지은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할만큼 최근 90년대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헬스케어 미디어에도 90년대생 기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청년의사 신에 김찬혁 기사를 초대해 90년대생 헬스케어 전문 기자의 삶에 대해 들어봤다.



1992년생 김찬혁 청년의사 기자

“

헬스케어는 누군가에게 절실한 주제다. 산업에 기여하려는 한편 산업과 함께 성장하려 노력한다.

”

지역 언론사에 2년 간 근무한 후 2020년 헬스케어 전문지 ‘청년의사’에 합류했다. 청년의사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젊은 기자다. 다양한 출입처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고 색다른 인사이트로 심도 깊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청년의사 김찬혁 기자 (사진. 김성현)

Q1. 우선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1992년생, 올해 서른 하나고 언론정보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기자로 지역 언론사에서 2년 정도 지자체, 시청, 법원 쪽을 취재했습니다. 2020년 6월에 청년의사 제약 바이오 산업 기자로 합류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자 경력은 3년차, 기자 경력은 5년차네요.

Q2. 기자를 직업으로 선택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언론정보학을 전공했기에 미디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학 중 세월호를 비롯해 여러 사회적 이슈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뉴스 콘텐츠 제작·유통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꿈꾸던 기자가 됐으니 선망하던 직업을 이룬 거네요. (웃음)

Q3. 헬스케어 전문 기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헬스케어 및 제약 바이오는 문과 출신에게 허들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운 좋게 청년의사에 합류하게 됐어요.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매체 수가 늘었고, 기자로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약 바이오, 의료 산업에 종사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과학 전공자이기에 올리히백의 ‘위험사회’ 같은 사회학자 이론을 배운 적이 있어요. 기술 발전은 계속 이뤄지는데 왜 인류가 안전하지 않은지, 때로는 과학기술을 견제해야 한다는 담론인데요. 이런 담론에 감명받아 과학 분야 일을 하고 싶었고 어쩌다 헬스케어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Q4. 만일 기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 것 같은가요?

대학 시절부터 기사를 꿈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생각해 봤는데 평소 책을 좋아해 될 수만 있다면 사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Q5. 동료들 중 가장 젊으실 것 같습니다. 90년대생 기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보다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무 시간에는 취재활동에 집중하고 퇴근 후 운동, 공부, 취미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소위 ‘갓생(God-生)’을 사시는 분들이죠. 자기 역량을 펼칠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특징인 것 같네요. 사실 기자 모임에 가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96, 97년생 기자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웃음)

Q6. 시니어 기자들 중에 90년대생 기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있는지?

‘90년대생은 이럴 거야’라는 고정관념보다 오히려 MZ 세대를 어려워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거나, 업무를 더 요청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선배들이 다가가거나, 아이템을 제안하거나, 쓴 소리를 할 때 90년대생들이 두, 세 걸음 물러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후배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기자로 키우기 위한 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감사해요. 편하게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90년대생이 그렇게 별종은 아니랍니다. (웃음)



Q7. 헬스케어 전문 기자가 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다면?

헬스케어 취재 분야를 공중 보건 정책과 제약 바이오 산업으로 나눠 말씀드리죠. 공중 보건 정책 쪽으로는 최근 인슐린 제제 공급 대란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환자 단체나 보건 산업 종사자들이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어요. 물론 저를 응원한다기보다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응원하는 댓글이었죠. (웃음) 그래도 공급이 원활하도록 알려 인슐린이 절실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일조했다는 생각에 다행스러웠고 뿌듯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팩트 체크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잘하는 점과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기업의 행보에 대해 짚어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때 보람 있습니다.

Q8. 내가 고른 나의 베스트 기사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인슐린 제제 공급 대란 기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모 바이오 기업의 내부 현황을 기사화했을 때도 사회적 여파가 있었는데요, 주가 시장이 흔들렸고 방송사에서 2차 취재 요청도 왔어요. 기자로서 순발력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Q9. 기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팩트 체크입니다. 기자는 엄밀성, 정확성이 필요한 직업이죠. 특히 제약 바이오 산업은 ‘자료가 정확한지’, ‘공약이 잘 이뤄지는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홍보하는 부분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 전문가들이 약을 처방했을 때 효능과 편의성은 어떤지’, ‘환자들에게 주는 편익은 무엇인지’ 등을 살피려 노력합니다.

Q10. 헬스케어 전문 기자로서 앞으로 취재하고 싶은 주제나 이슈는 무엇인가요?

국내 제약사들이 예전에는 제네릭 위주였는데 요즘엔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자체 연구를 통해 신약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국내 제약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규제과학’에도 관심이 있어요. 특정 연구가 장차 사회에 가져다줄 편익과 폐해를 저울질하여 해당 연구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해 주는 과학의 새로운 분야죠.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기업에는 어떤 점이 필요한지 살피고 싶어요.

Q11. 기사 주제를 선정할 때 중점을 두는 게 있다면?

관심사를 주제로 선정하는 편이에요. 대중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사와 더불어 대중의 관심은 적을지라도 종사자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를 쓰는 게 저의 비즈니스 루틴이에요. 사실 이 기사를 얼마나 많이 볼까에 대한 고민도 없을 수는 없어요.

Q12.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에피소드는?

아쉽게도 드라마틱했던 에피소드는 없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현장 취재를 많이 못해 아쉬워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매번 재밌었어요. 어떤 분은 인터뷰를 마친 후 사담을 나눌 때 말문이 트여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요. 취재원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Q13. 90년대생 헬스케어 기자로서 동년배 신입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은?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고, 경험을 같이 잘 쌓아가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선배님에게 들은 조언인데, 헬스케어 분야는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 벽에 부딪힐 때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버티면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 점프하는 순간이 온대요. 벽에 부딪혔다고 느낄 때 큰 위로가 된 조언입니다.

Q14. 청년의사의 후배 기자들에게 조언을 하시나요?

사실 제 코가 석자라... (웃음) 오히려 같이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관심을 끌 거라 생각한 기사가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후배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기사의 반응이 없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낙담한 적이 있어서 매우 공감이 됐어요. 그 때 ‘계단식 성장’ 조언을 해줬어요. 또 비슷한 패턴으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경험을 반추 삼으면 다음 번엔 더 잘할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Q15. 개인적인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면 잘 아는 주제를 다뤄 자신감을 얻으려 합니다. 기사 쓸 때처럼 ‘자기 세뇌’도 해요. 전공자가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늘 있어 내가 이 분야를 제일 잘 안다고 세뇌를 하면서 써요.



Q16. 기자로서 보람과 고충이 각각 무엇인가요?

매일 마감 시간에 쫓기고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힘들지만 ‘재미’라는 장점이 10가지 단점을 다 덮는 직업이에요. ‘재미’라는 장점 덕에 적성에 잘 맞으면 마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는 누군가에게 절실한 주제고, 성장성이 높아 기자로서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Q17. 기자님에게 PR봄은 어떤 회사인가요? 또 PR봄 자료에 대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엄밀성’을 중시하는 회사 같아요. 헬스케어에 특화돼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레퍼런스, 현장 취재 협조 등을 전문적으로 도와주세요. PR봄에서 받는 자료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기자 본연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기사 작성에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글 김도희 / 사진 송경은 외

평범한 창립기념일은 No! 보머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1월

1월 19일, 여덟 번째 창립기념일을 맞았다. 회사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함께 달려온 보머들을 위한 와인 클래스, 치즈 클래스, 티(tea) 클래스가 마련됐고, 관심사에 따라 각자 자유롭게 클래스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칫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날이 특별하게 기억됐다.



4월



[우리 다시 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팀워크

2022년에도 계속된 코로나19로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팀워크를 다질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봄'을 통해, 하루 동안 일에서 벗어나 팀별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족욕을 한 팀도 있었고, 도예 공방을 찾거나, 향수를 만든 팀도 있었다. 이 밖에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베이킹·꽃꽂이 수업을 듣는 등 팀별 개성이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다. 😊

5월

리더십 워크숍

랜선진료소 1주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피알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랜선진료소'가 5월 24일 1주년을 맞아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랜선진료소는 의료진, 환우 등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의학·건강 정보를 폭넓게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랜선진료소가 되기를...



전 구성원이 참여한 비전 워크숍! 피알봄의 미래는? 7월

한 배를 탄 보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꼬박 이틀간 진행된 비전워크숍에서 보머들은 피알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 (열기로 가득했던 현장은 '봄의 새바람' 코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8월



4주 직무 특강으로 능력은 Level up!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이미 능력자인 보머들의 능력치를 더욱 높여줄 특강이 한 달간 진행됐다. SNS 채널 활용법,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 인사이트, 제안서 작성법, PT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 덕에 보머들은 부쩍 성장했다.

전사 볼링대회, "우리의 회식은 특별하다"

잘 노는 보머들을 위해 피알봄배 볼링대회가 열렸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베스트 포토상도 수여했는데 개그감이 뛰어난 보머들이 노려 이 역시도 치열했다는 후문. 😊

Welcome 2023 피알봄! 부산에서 전사 워크숍 12월

일찍 일어난 새...아니 일찍 준비한 PR인이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하다. 치열했던 2022년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부산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레벨업 된 능력과 단단한 팀워크로 무장한 보머들의 2023년 활약을 기대해도 좋다.

구지은 사원, 만능캐 꿈꾸는 침착보스

글 임예슬

보머들이 왜 지은님을 '만능캐'라고 생각했을까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팀원들에게 세베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했더니, 저를 올해의 보머로 추천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해 어떤 일든 빨리 알아보고 해결하는 타입이에요. 저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빨리 일 처리하는 걸 좋아하고 답답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주변 분들이 맛집을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맛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아니까 이 점도 고려해 뽑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추천 드려요. 기환 과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부대찌개 맛집 '되는 집'이랑 종로 돈부리라고 연어덮밥 맛집이 있습니다.

원래 성격도 만능캐이신 편인가요?

원래 MBTI는 ENTP예요. 군데 작년 말부터 ISTP가 나왔어요. 어쩌면 제가 그런 성격이 되고 싶어서 검사할 때 답변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INTP가 나왔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가 뭔가요?

올해 서울 퀴어 문화 축제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래 준비했는데, 첫 축제 준비라 그런지 다른 업무보다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준비하는 기간 이 너무 길어 조금 지쳤어요. 이것저것 확인할 게 많아 피곤했지만, 막상 직접 가보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는 축제 부스 운영과 퀴어 퍼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퍼레이드를 따라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결국 퍼레이드 카를 따라가지 못하고 퍼레이드에 같이 간 사람이 저랑 고객사 직원 분, 종찬 대리님 이렇게 셋인데, 그 비 속에 셋이 행렬을 따라간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업무가 힘들 때 색다르게 푸는 만능캐의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극복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팀원들이랑 이것저것 수다를 떠는 편이어서, 얘기하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합니다. 또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힐링 타임을 갖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유튜브 콘텐츠나 플레이리스트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요즘에는 <동물의 숲>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일하고 거기서도 일하는 웃픈 상황이죠. 섬 꾸미기 같은 걸 하는데 디자인 감각이 너무 없어 힘들어요.

콘텐츠는 침착맨 영상을 제일 많이 봐요. 스포츠 경기도 많이 봅니다. 특히 좋아하는 팀은 없지만, 올림픽, 월드컵 같은 큰 행사 때면 다 챙겨보는 편입니다. 종목을 고르려면 피겨, 여자 배구를 챙겨봅니다.

노래는 ODE Studio Seoul 플레이리스트와 옛날 드라마 OST를 많이 들어요.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지드래곤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빅뱅을 좋아했는데, 지금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밴드 음악도 많이 들어요. 국카스텐, 데이식스, 자우림, 넬 이 정도 인 것 같아요.

올해의 만능캐 보머, 지은님은 올해의 보머로 누구 지목하셨나요?

저는 김자영 팀장님을 지목했습니다. 색다른 인사이트가 많아서 신선했고 그걸 추진하는 실천력이 멋있어서 뽑았어요.



